

완도 전복 추석 물량공급 '이상무'

태풍 피해 조사결과 22%로 예상보다 적어

전복사주기 범국민운동 전개

완도군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전복피해가 22%로 추석 전복공급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 전복생산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완도군은 지난날 28일 강력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전복 해상가두리 양식장 등에 30~40%의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종 피해조사 결과 22%로 집계

됐다. 군은 완도전복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노화·보길·소안 지역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했지만, 보길도의 피해가 31%로 가장 많고 노화와 소안은 피해가 크지 않아 추석 전복공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완도전복(주) 대표 이석규씨는 "현재 원물 62톤이 확보됐고, 추가매입을 확대해 가격안정화에 매진하고 불류 혁신을 통해 전복의 전국 운송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태풍피해를 본 전복생산 어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전복사주기 범국민 운동'을 펼친다.

'우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전화위복의 뜻을 담은 이번 운동은 군청, 관계기관, 전복주식회사, 생산자협회 등이 참여한다. 전국에 있는 항우회원,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명예면장·이장도 동참한다.

서울 등 대도시 아파트, 백화점, 대형 마트를 방문하고 직거래장터를 열어 관측활동을 할 예정이다.

군은 전라선업과에 전복사주기 범국민운동 창구(061-550-5133)를 개설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태풍 피해로 전복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우려와는 달리 가격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면서 "올 추석에도 예년과 같이 완도산 전복을 추석 선물로 애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낙과 배 사주기

목포시청 공무원들이 지난 11일 시청 야외주차장에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무안·해남·신안 등 서부권 지역의 '낙과 사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날 낙과배 450박스(1125만원)가 판매됐다. <목포시 제공>

불법 사금용·농산물 절도 예방 홍보

목포경찰, 신안 장산 '해피 아일랜드' 행사

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최근 신안군 장산면을 찾아 도서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 아일랜드' 행사를 가졌다.

목포경찰청 경찰관 10명과 신안군 보건소 의료팀 2명, 미용협회 3명 등 총 15명으로 장산면사무소에 '이동경찰서'를 운영, 불법 사금용 등 민원상담 및 농산물 절도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교통 민원팀은 원동기 및 사람이 면허시험을 실시해 도서지역 거주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치안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에서 원동기 면허시험 참가자 38명이 전원 합격하고 일반잔주 30명, 이·미용 15명, 컴퓨터 및 전화수리 5명을 실시하는 성과를 올렸다.

임광문 서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해피 아일랜드' 치안봉사 활동을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무안 액비업체 전직 공무원 영입 양돈농가 홍보 편지 배포 구설수

현직공무원 연루 진위 공방

무안지역 한 액비(물거름) 유통업체가 전직 공무원을 영입한 후 관내 양돈농가에 홍보성 편지를 보내 구설수에 올랐다.

12일 무안군 양돈업계에서 따르면 액비 유통법인인 M법인 C대표는 전직 축산직 공무원인 K씨를 이사로 영입한 후 관내 양돈농가 대표들에게 홍보성 편지를 보냈다.

C대표와 K이사 명의로 된 편지는 "법인을 설립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됐다"면서 "양돈사업에 그렇지만 액비사업도 환경문제로 사실상 힘든 사업이다. 미생물 처리 등 최대한 약취제거에 노력하고 있다"며 액비수거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번 편지는 K이사의 영입과정을 설명하면서 현직공무원인 L계장의 소개를 받았고, 양돈농가의 액비문제와 축산농가 액비실포, 행정적인 도움 등을 받았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L계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업체와 L계장간에 편지내용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행정적인 도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하는 점도 의문이다. 편지에 연루된 M법인은 '무안군 농림사업 보조금 특혜 의혹' <광주일보 9월 11일 10면>을 받고 있는 업체이다.

양돈농가 A씨는 "전직 공무원이 되지 후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 법인에 근무하는 것은 '전과 예우' 등 문제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L계장은 "M법인에 K씨를 소개하지 않았다"며 "본인들이 찾아 와서 사과를 했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가자! 꿈을 이루는 신비의 바다로

내년 4월 26~28일 진도 바닷길 축제

'현대관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가자! 꿈을 이루는 신비의 바다로'란 주제로 내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고군면 회동과 의신면 모두 사이에서 열린다.

국가 명승지 제9호로 지정된 축제 현장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2.8km의 바다가 40여m 폭으로 갈라져 '현대관 모세의 기적'으로 불린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프랑스와 일본 크루즈 여행사로부터 내년도 바닷길이 열리는 일정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일본 크루즈 여행사는 300여명의 단체 관광객 예약을 완료했다.

군은 불거리, 체험코너를 대폭 늘리고 홍보도 강화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진도에서만 체험하고 볼 수 있는 민속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한편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서부취재본부=박영희기자 hypark@

신안군 산림조합금융 하당지점 개설

산림청 산하 신안군 산림조합 (조합장 황권순)은 지난 11일 목포시 옥암동에 산림조합금융 하당지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금융업무를 시작했다.

산림조합 금융 하당지점은 상호금융 활성화를 위해 산주와 임업인에게 영업 정책자금 융자, 임야담보 대출 등 산림사업에 필요한 금융뿐 아니라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여·수산업부, 각종 공과금·국고 수납, 타행송금, 지

로남부 등 은행업무를 취급한다. 황권순 조합장은 "예금금리는 높고 대출금리는 낮은 금융운용으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산림조합 금융이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서민 금융기관으로 발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전 북

한우 1등급을 삼과 함께 맛보세요

순창 구산마을서 15일 삼축제

두부 만들기와 삼채소 따기 등 도시민 웰빙체험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순창군 구산면 구산마을에서 15일 삼축제가 열린다.

회문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위원회(위원장 설성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삼축제는 도·농 교류센터 준공식을 시작으로 주민웃음이, 베풀러

데오, 내가퀴즈왕 골든벨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삼추 수확체험을 비롯해 한우 삼 낚시체험 등 각종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특별행사로는 황소고기 부패점을 운영해 한우안소 1등급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식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군산 내항 재개발 '답보'

예산 없어 2007년 이후 제자리 걸음 시민단체 "정치권 예산 확보 나서야"

군산내항(內港) 재개발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며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 경제단체 등에서는 "시와 군산항만청, 정치권이 협력해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군산시가 내항 개발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와 시는 금강 상류에서 떠밀려온 토사가 쌓이면서 내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내항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7년째 설계비용을 확보한 것이 전부이고, 내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본 예산을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시는 당초 오는 2015년까지 1364억원을 들여 내항 준설과 내항주변을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군산항만청은 최근 '군산내항 재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해마다 우선순위에 밀린 이 사업의 본 예산 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008년 기본설계 용역 실시 이후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자세가 하나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

단 신

전북교육청, 내년 혁신학교 40곳 선정

전북도교육청은 내년도 혁신학교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내년 40개교 안팎을 혁신학교로 새로 지정하고 15개교를 혁신씨앗학교로 선정한다.

이달 말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혁신학교 공모 절차에 착수하며 결과는 10월 말에 나온다. 혁신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교사 초빙권을 가지며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사 연수, 학교 컨설팅 등을 하게 된다.

이달 말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서부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섬진강 시인' 초청 새만금아카데미 강좌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제8강좌가 13일 오후 3시 군산시청 새만금 아카데미홀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에는 '섬진강 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용택씨가 '문학과 예술을 통해 세상을 디자인 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김용택 시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세상과 나와서 관계가 맺어지고, 문학과 예술이 자연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준다"는 내용으로 강연을 계획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시, 우수시책 7건 선정

정읍시는 최근 전문가 초청 신규시책 발굴 토론회를 갖고 '내장산 오토캠핑장 조성'과 '전통산업점포 발굴 육성' 등 모두 7건을 우수시책으로 선정했다.

시는 앞으로 선정된 시책에 대해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 반영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시책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김병기 시장은 "공무원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지역사회를 발전, 성장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임도 63곳 풀베기 실시

순창군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성묘객과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63개소 98.9km에 이르는 관내 임도변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전주 월드컵인라인 마라톤대회 15일 열린다

'2012 전주 월드컵 인라인 마라톤대회'가 15~16일 이틀간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린다.

대한 롤러경기연맹 주최·전주시 통합체육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WIC(World Inline Cup)에서 공식 인증을 받고 전문성을 갖추며 국제대회로 승격됐다.

15일 송천동 인라인 롤러경기장에서 는 국내 동호인 500명이 참여하는 트랙경기가 열린다.

이어 16일에는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3000명의 국내외 선수 및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인라인 마라톤대회가 펼쳐진다. 전주시 통합 체육회 관계자는 "국제대회에 걸맞게 국내외 인라인 선수 및 동호인들이 대거 참여해 폭 넓게 경쟁할 수 있도록 대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부안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매각

다음달까지 신청 접수

부안군은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및 해당 토지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다.

부안군은 "다음달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신청 접수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유 일반재산이면 가능하다. 다만, 국토계획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거나 개발 또는 비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수의매각 요건으로는 농지로

서 국유지를 대부분이 직접 5년 이상 경작하거나 지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건물을 점유한 국유지,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분권자,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 소유자 등이 해당된다.

부안지역 내 국유재산은 1135필지 76만8686㎡로, 현재 대부분 면적은 1192건 66만7037㎡에 달한다.

매각 신청 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문의(0630580-4275)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치카푸카 양치 체험교실

최근 군산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주관의 '치카푸카 양치 체험교실'에 참여한 미취학 아동들이 올바른 치솔질을 배우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